

김영섭 “본업 아닌 자산 유동화…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

〈KT 대표〉

주파수, 위성, 6G, AI 등 투자 필요 MS와 인적향상 위한 협력 진행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공정적’

KT가 본업과 관련없는 그룹사 보유 자산을 매각해 AI(인공지능), 6G(6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투자한다.

KT는 지난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AI 및 6G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매각 규모나 시가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수익 호텔 부동산과 임대부동산 등 우리 통신업 본업에 비효율적인 자산은 유동화(현금화)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적기에 유동화해 투자를 늘려 본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KT

이어 “과거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지국이 4km마다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부지가 남는다”면서 “앞으로 주파수도 받아야 하고 위성도 해야 하고 6G도, AI도 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우리는 MS와의 인적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는 쪽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MS의 인재와 KT 자본으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빅테크 의존도에 대해서는 빠른 기술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긍정적이었다고도 말했다. KT는 지난해 본사 인원 중 2700명에 대한 희망 퇴직을 진행하고 1700명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진출했다.

김영섭 대표는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며, 외국 인재도 과감히 영입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이 시급하다”며 “(구조조정 후) 22년만에 통신 3사 중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KT는 위성 및 양자,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기술로 낙점하고 기술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위성통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지궤도 위성(GEO), 저궤도 위성(LEO), 성층권 비행체(HAPS)를 활용한 여러 계층의 비직상 통신 네트워크(NTN)를 구성해 3차원 공간 커버리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양자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KT는 양자를 이용해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로 양자 인터넷 시대를 열고, 해당 기술로 고객정보 탈취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한다. 양자 암호통신은 양자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것으로, 현재 KT는 양자 암호키 생성 속도를 국내 최고 수준인 150kbps까지 끌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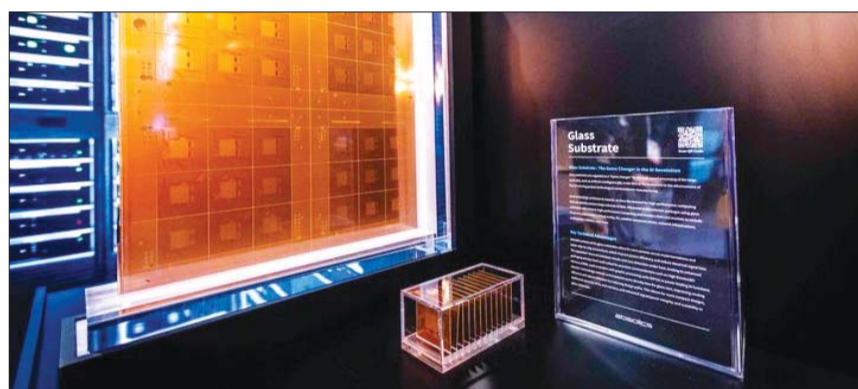
이밖에 AICT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네트워크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반도체 격전지 ‘부상’… 삼성전자·SK 등 대거 합류

SK하이닉스 온바이스 AI 메모리 삼성전자 HBM·AI 반도체 제품 엔비디아·퀄컴 AI 최적화 칩 선배

올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사 부스를 꾸리고 AI 반도체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를 공개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참석해 AI 신기술을 선보였다. 과거 MWC는 통신 분야의 주요 행사로 꾸려졌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등에 AI 칩이 탑재되면서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에서 개막한 ‘MW



SKC 글라스 기판이 AI 데이터 센터에 적용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다. /SKC

C 2025’의 올해 기조연설자로는 AMD의 부사장이자 사일로 AI의 창립자인 피터 살린이 참여했다. 사일로 AI는 지난해 AMD가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 6억6500만달러를 들여 인수한 회사다.

올해 MWC에서 AI 반도체를 내세운 주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DS부문 유럽법인)와 SK하이닉스다. 두 회사는 각각 프라이빗 부스를 차리고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회사는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등을 중점으로 부스를 구성한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온바이스 AI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하는 기술이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고성능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와 함께 AI 통합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풀 스택 인공지능(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세대 HBM인 HBM3를 처음으로 상용화하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SKC의 글라스기판도 소개된다. 글라스기판은 AI 데이터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로 소개된다. 유리 기판 특유의 높은 평탄도와 열 안정성을 바탕으로 기존 유리기판 대비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또 MLCC 등 다양한 소자를 기판 내부에 집적할 수 있어 표면에는 CPU·GPU 등 고성능 칩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패키지 두께는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얇아지고, 전력 소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역시 약 40% 개선돼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용 부스를 통해 HBM과 올해 AI 반도체 등을 차세대 AI 제품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3E) 등 AI 메모리와 이미지 센서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엑시노스 2400과 엑시노스 오토 V920 등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차량용 반도체도 선보일 예정이다. 파운드리 분야에선 게이트올라운드(GAA) 기술을 각 분야 주요 기업들에게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DS부문은 지난 CES에서 ‘AI 넥서스 : AI 혁신이 융합되는 곳’을 주제로 기업간거래(B2B) 고객 대상의 프라이빗 부스를 꾸린 바 있다.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도 이에 맞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엔비디아와 퀄컴은 AI 최적화 칩을 내세운다. 엔비디아는 AI 슈퍼컴퓨터용 HBM4 기반 그래픽처리장치(GPU)인 GB200과 H200을 자체 개발했다. 퀄컴은 8세대 5G 모뎀-엔테나 솔루션이자 4세대 AI 기반 5G 연결 플랫폼인 ‘퀄컴 X85 5G 모뎀-RF’를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최대 12.5G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며, 서브6(Sub-6) 및 밀리미터파(mmWave) 주파수를 지원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더욱 강력한 연결성을 보장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소버린 AI 구축하려면… “독립적인 AI 역량 쌓아야”

각국 기업서 역량 강화 움직임 성과 보이며 정부 차원 지원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국가 주도 AI 산업 육성론’을 두고 여야가 “바보의 바보스러운 상상이다”,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게 무지몽매한 생각이다”라며 치고받고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K-엔비디아 성패의 키를 쥔 ‘소버린 AI(자국 중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AI 업계에 따르면 K-엔비디아를 통한 조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버린 AI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자국 중심 인공지능이 정부 주

도 AI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소버린 AI는 자체 인프라 및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 언어와 문화·가치관 등을 반영해 만든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브리프’에서 “오픈AI·구글 등 미국 AI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독립적인 AI 역량을 쌓으려는 각국 기업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ITP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챗GPT

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에 1억 파운드(약 1863억원), 슈퍼컴퓨터에 9억 파운드(약 1조6765억원)를 투입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 중인 AI 패권을 견제하고 영국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춘 ‘브릿GPT’를 개발키로 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725억엔(약 7048억원)의 자금을 기업들에 지원하고 엔비디아와 협력, 일본어 특화 LLM을 개발 중이다.

대만 역시 중국의 AI 공세에 대응하고자 소버린 AI 개발에 수천억원을 투자, 대만인들이 쓰는 번체자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챗봇 ‘타이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칠로엔, 메타빌드에 ‘링크뮤직’ 서비스 공급

메타빌드 ‘클레버 원’에 적용

뮤지테크 전문 스타트업 칠로엔은 인공지능(AI)·연계 소프트웨어(SW) 전문 기업 메타빌드에 링크뮤직 배경음악 솔루션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칠로엔의 기업형 배경음악 AI 에이전트 서비스 ‘링크뮤직’은 메타빌드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휴먼 서비스 플랫폼 ‘클레버 원’에 적용된다.

클레버원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디지털 휴먼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동영상 만들 수 있다. 동영상 텍스트 시나리오, 프롬프트 입력, 동영상 내 등장하는 사물이나 배경 이미지 등에 따라서 AI

가 배경음악을 추천해준다. 클레버원 사용자들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고품질 음원을 디지털 휴먼 영상 제작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메타빌드의 디지털 휴먼 서비스 플랫폼 내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기반 배경음악 추천 및 서비스 연동, 최적화 ▲AI와 확장현실(XR) 기술을 접목한 음악 서비스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링크뮤직은 콘텐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배경음악을 API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김현정 기자